"책과 하루를" 광주 도서관 문화마당 4월 5일 열린다

광주시청 시민홀·야외광장서… 초청 강연, 노벨상 수상작 전시, 전통놀이 등 풍성

완연한 봄과 함께 올해로 13회를 맞은 광주를 대표하는 도서관 축제 '도서관 문화마당'이 찾아온다.

광주광역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는 4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에서 '제13회 도서관 문화마당'을 개최한다.

지역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 점자도서관, 독서단체, 지역서점 및 출판사 등 56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문학이 온다'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이라는 의미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강연부터 마술공연, 한강 작가의 저서 등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읽을 수 있는 독서쉼터, 도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북마켓, 책갈피 만들기 등 독서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꾸려진다.

먼저 시청 1층 시민홀에서는 광주시민 518명이 참여한 한강 작품 필사 전시와 함께 유명 작가들의 강연이 열린다.

필사 전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인근에는 AI로봇이 사진을 찍어주는 '문학이 온다' 포토존이 마련된다.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개그맨 출신이자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등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고명환 작가의 초청 강연이 진행된다.

고 작가는 자기주도적 삶을 위한 독서법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고 작가의 강연이 끝나면 어린이 독자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지은 그림책 작가의 강연이 열린다. 이 작가는 '츠츠츠츠', '친구의 전설' 등 다양한 그림책을 출간해 아동도서 분야에서 권위 있는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했다. 이 작가는 작품 탄생 과정과 등장인물 세계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시청 야외광장에서는 즐길거리부터 놀거리, 쉴거리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콘텐츠들이 펼쳐진다.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는 '배트맨의 마술·버블쇼' 공연이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두 차례 열린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벨문학상 수상작과 함께하는 독서공간이 운영된다. 한강 작가의 저서는 물론 다양한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만나볼 수 있다. 인디언 텐트와 빈백 등이 마련돼 있어 편하게 독서하고 쉴 수 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대한 토론과 소감을 나누는 독서토론 시간도 진행된다.

다양한 전통놀이부터 야외놀이까지 즐길 수 있는 독서놀이터도 마련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호, 고리던지기, 제기차기와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전래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스포츠 스태킹, 미니 트램폴린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로 어린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도서, 독서 관련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북마켓이 운영된다. 독립서점 8곳과 출판사 3곳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독립출판물도 만나볼 수 있다.

시민홀과 야외광장에서 동시에 열리는 체험부스도 이번 축제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지역 공공도서관과 점자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작은도서관, 민간독서단체, 서부소방서 등 45개 기관이 참여한다.

오색영롱한 자개 키링 만들기, 하바리움 볼펜 만들기, 책 향기 가득한 석고방향제 만들기, 수박 팔찌 만들기, 청동거울 만들기, 책 표지 드로잉 체험, 광목책 만들기, 나만의 압화 그립톡 만들기 등 여러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서부소방서 부스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송경희 광주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 문화마당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을 전하고, 도서관이 시민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시청을 찾아 책과 함께 즐거움과 여유가 있는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초청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대표 도서관 누리집(https://lib.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기자

광양시, '2025 올해의 책' 3권 선정

작가초청 강연 등 시민 한 책 읽기 운동 본격화

광양시가 지난 5일, 2025 올해의 책으로 ▲ 어린이 부문에 「아무네 가게」(정유소영,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청소년 부문에 「고요한 우연」(김수빈, 문학동네) ▲ 성인 부문에 「찬란한 멸종」(이정모, 다산북스) 총 3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올해의 책 시민선정단 구성, 시민 참여 강화

2025 광양시 올해의 책은 4개월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선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과 선호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올해의 책 시민선정단'을 모집하는 등 시민 참여를 강화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의 모집기간을 거쳐 사서·독서강사·지역서점관계자·도서관 다독 이용자 등 각계각층 인사 19인으로 시민선정단을 구성했다.

이후에는 사전에 시민과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별된 후보 도서 30권에 대해 부문별로 시민선정단의 심의가 이뤄졌다. 각 부문 후보 도서에 대해 2회에 걸친 심층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 도서 6권(부문별 2권)을 선정했다. 이 최종 후보 도서를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온·오프라인 시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2,725명의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3월 5일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올해의 책이 선정됐다.

◇ 2025 광양시 올해의 책

어린이 부문의 「아무네 가게(정유소영)」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신비한 가게에서 벌어지는 따뜻한 이야기이다. 사람들의 아픔을 아물게 해줄 마법 같은 물건을 파는 아무네 가게에서 서로 위로하고 성장하며 치유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청소년 부문의 「고요한 우연」(김수빈)」은 평범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작은 선의와 관계의 변화를 섬세하게 그린 청소년 소설이다. 주인공 수현이 우연히 SNS를 통해 현실에서는 알 수 없었던 동경하는 친구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 알게 되면서 겪게 되는 고민과 이를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SNS에서 익명의 상대와 그들만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청소년들의 현주소를 존중 어린 시선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성인 부문의 과학 「찬란한 멸종(이정모)」은 46억 년 지구의 역사를 멸종이라는 관점에서 유머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풀어낸 과학 교양서다. 2150년 인공지능의 시선에서 출발해 범고래, 네안데르탈인, 삼엽충 등 다양한 생명체의 이야기를 통해 인류와 생명의 변화를 조명한다. 또한, 기후위기와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기를 인간의 의지로 극복해나갈 수 있음을 강조한다.

◇ 2025 올해의 책 선포 및 작가초청 강연

광양시는 4월 8일 오후 2시, 광양시청 시민홀(구 대회의실)에서 시민 한 책 읽기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한다.

시민대표들이 2025년 올해의 책 선정을 공표하고, 성인 부문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찬란한 멸종」의 이정모 작가가 광양을 찾아 "테라포밍 또는 찬란한 멸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3월 19일부터 전화와 온라인(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받는다.

선포식 이후에도 어린이, 청소년 도서의 저자인 정유소영, 김수빈 작가를 초청한 강연이나 독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함께 읽는 즐거움, 범시민 독서 릴레이 전개

4월 15일부터는 올해의 책 범시민 독서 릴레이를 전개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에 배부되는 올해의 책을 통해 학교 단위로 독서 릴레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성인은 독서동아리를 중심으로 릴레이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광양시립도서관을 방문해 동아리 단위의 독서 릴레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올해의 책을 수령하면 된다.

올해의 책 특별 대출 서비스도 실시한다. 특별 대출은 학교, 독서동아리, 직장 등 기관 단위로 올해의 책을 30일 동안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광양/신선호 기자

나주시, 타오르는강·백호문학관서 '시 창작 강좌' 무료 운영

'시시각각' 평일·주말반 구성, 시청 누리집 QR로 수강신청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문학관에서 '시(詩)' 창작 무료 강좌를 운영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4월부터 타오르는강 문학관, 백호문학관에서 '시인과 함께하는 시 창작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창작 교실은 '시시각각'(詩詩各各·각자의 시, 모두의 시)이라는 주제로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구성했다.

평일반은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8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타오르는강 문학관에서 이대흠 시인이 진행한다.

이대흠 시인은 1994년 창작과 비평에 '제암산을 본다' 외 6편의 시를 발표하며 시인의 길에 들어섰다. 제3회 현대시동인상, 제25회 천상병시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말반 강좌는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백호문학관에서 김성규 시인이 지도한다.

김성규 시인은 200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신동엽문학상, 김용구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도서 출판 '걷는사람' 대표이자 백호임제문학상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6월 7일엔 종강을 기념해 나주시와 문학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화여자대학교 정끝별 교수 강연과 수강생들의 창작시 발표회가 열릴 예정이다.

시는 수강생들의 작품을 문집으로 발간해 2025 나주영산강축제 현장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시 창작 강좌는 시를 좋아하는 청소년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나주시청, 백호문학관 누리집 '시 창작 교실' 공지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 온라인(구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문학적 상상력을 키우고 창작활동을 통해 숨겨있던 문학적 재능과 진로를 발견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